

건강 칼럼

신부전증

신장의 역할

신장의 작용은, 심장 등 다른 장기에 비하면 훨씬 복잡하다.

신장은 소변을 만들고 그것과 함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버리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신장은 폐와 마찬가지로 몸에서 필요 없게 된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기관이다.

신장의 활동으로 몸의 성분이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덕분에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서구식 식생활의 변화는 신장염이나 당뇨병성 신증, 요독증 등으로 혈액 속에 다양한 노폐물이 쌓이며 병을 키우고 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오염된 피가 원인이다.

신장의 활동으로 몸의 성분이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덕분에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서구식 식생활의 변화는 신장염이나 당뇨병성 신증, 요독증 등으로 혈액 속에 다양한 노폐물이 쌓이며 병을 키우고 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오염된 피가 원인이다.

신부전증의 원인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다.

만성 신부전증의 3대 주요 원인으로는 당뇨병과 고혈압, 사구체신염이 있고 그 외에도 만성 신우신염



이현기

굿모닝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과 다낭성 신장병 등이 있다. 당뇨병의 경우 당뇨 조절 실패로 인한 합병증으로 모세혈관에 변화가 생기고 단백뇨가 심해지며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고 부종과 고혈압이 발생하게 된다.

고혈압은 합병증으로 단백뇨, 신부전 등이 생길 수 있고 만성 사구체신염은 오랜 기간 지내면서 신장 손상이 진행돼 만성 신부전에 이르게 된다.

급성 신부전증은 분류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의 감소로 인한 원인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심한 탈수, 과다 출혈, 화상, 심한 구토, 장기적인 이뇨제 복용, 폐장염이나 복막염, 패혈증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신장의 원인으로 신장 자체의 직접적인 손상으로 인한 것인데, 여기에는 신장 미세 혈관염과 장기간 지속된 신부전 또는 약물에

의한 급성 세뇨관 괴사, 신장으로 많이 전파된 경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요로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요로 결석, 요로 계통의 종양, 선천적인 기형 등이 있다.

신부전증의 진단은 눈으로 혈뇨가 보이거나, 몸이 붓는 경우, 소변의 양이 줄거나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경우, 소변 검사에서 현미경적 혈뇨 또는 단백뇨 소견이 보일 때, 잦은 요로감염의 소견이 있을 때, 혈액 검사에서 신기능 장애 소견이 있을 때,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오래 되었을 경우에는 전문의의 적절한 처방과 치료가 필요하다.

신부전증의 진단은 눈으로 혈뇨가 보이거나, 몸이 붓는 경우, 소변의 양이 줄거나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경우, 소변 검사에서 현미경적 혈뇨 또는 단백뇨 소견이 보일 때, 잦은 요로감염의 소견이 있을 때, 혈액 검사에서 신기능 장애 소견이 있을 때,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오래 되었을 경우에는 전문의의 적절한 처방과 치료가 필요하다.

신부전증의 진단은 눈으로 혈뇨가 보이거나, 몸이 붓는 경우, 소변의 양이 줄거나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경우, 소변 검사에서 현미경적 혈뇨 또는 단백뇨 소견이 보일 때, 잦은 요로감염의 소견이 있을 때, 혈액 검사에서 신기능 장애 소견이 있을 때,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오래 되었을 경우에는 전문의의 적절한 처방과 치료가 필요하다.

신부전증의 진단은 눈으로 혈뇨가 보이거나, 몸이 붓는 경우, 소변의 양이 줄거나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경우, 소변 검사에서 현미경적 혈뇨 또는 단백뇨 소견이 보일 때, 잦은 요로감염의 소견이 있을 때, 혈액 검사에서 신기능 장애 소견이 있을 때,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오래 되었을 경우에는 전문의의 적절한 처방과 치료가 필요하다.

신부전증의 진단은 눈으로 혈뇨가 보이거나, 몸이 붓는 경우, 소변의 양이 줄거나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경우, 소변 검사에서 현미경적 혈뇨 또는 단백뇨 소견이 보일 때, 잦은 요로감염의 소견이 있을 때, 혈액 검사에서 신기능 장애 소견이 있을 때,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오래 되었을 경우에는 전문의의 적절한 처방과 치료가 필요하다.

신부전증의 진단은 눈으로 혈뇨가 보이거나, 몸이 붓는 경우, 소변의 양이 줄거나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경우, 소변 검사에서 현미경적 혈뇨 또는 단백뇨 소견이 보일 때, 잦은 요로감염의 소견이 있을 때, 혈액 검사에서 신기능 장애 소견이 있을 때,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오래 되었을 경우에는 전문의의 적절한 처방과 치료가 필요하다.

백질의 섭취를 꼭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하고 염분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고혈압은 신부전을 악화시키므로 정상 혈압을 유지해야 하며 단백뇨를 줄여주는 약물 복용, 인산의 축적을 막고 칼슘을 보충해 주는 약물치료와 빈혈 치료가 필요하다.

신기능이 정상인의 10% 이하가 되면 식사 조절과 약물요법으로 생명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하게 된다.

급성 신부전증은 식이요법이나 투석을 진행하며 신장기능이 회복되기를 기다린다.

식이요법은 단백질을 줄이고 당질과 지질로 열량을 충분히 보충한다. 또 식사에서 섭취되는 것을 포함해 수분과 염분의 섭취량을 제한한다.

식욕부진이 심하거나 식욕이 없어 정해진 양을 전부 먹을 수 없을 때는 수액 요법으로 열량을 보충하며, 요량 저하로 부종이 있을 때는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제를 사용한다.

중요가 2~3일 계속되거나 혈액 중에 요소질소 등의 질소화합물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고질소혈증이 심할 때는 투석이 필요하고 급성 신부전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질환의 치료도 해야 한다.

사설

제3금융도시 지정 꼭 성취해내야

전북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는 제3금융도시 지정이다. 그런데 그 추진이 도전을 받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이 노골적으로 탄압을 걸었었는데 그것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가 전북을 제3금융도시로 지정하려하자 부산상공회의소가 발끈하고 나섰다.

그것은 다시 돌아가 생각해도 분노의 대상이다. 전북 금융은 연기금과 농생명 특화 중심이고 부산 금융은 해양과 그와 관련된 것이 중심이다.

그 성격과 분야가 확연히 다르기에 중복되는 게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은 종합 금융이니까 국가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만 착실히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서울과 부산의 방해 공작은 전북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전북을 행거줄 것처럼 하던 정부가 입장 정리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저번에 전북을 찾은 최중구 금융위원장에게 송하진 도지사가 금융 발전을 부탁했지만 흔쾌한 답은 없었다. 제3금융 중심지 지정에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그러서 걱정되는 게 있다. 이렇다기에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여간 큰 도전을 받게 아니겠구나 라는 짐작이다. 그리고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했

던 자들이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또다시 시도할 지 모르겠다는 짐작이다. 물론 그런 일이 없도록 전북도는 미연에 막아야 한다.

전북도는 제3금융도시 지정을 반드시 성취해내야 한다. 그러려면 성취동기를 강화해야 한다. 저들은 보수 경제 인턴으로 막장 연출을 하더니 미국의 웰스트리트저널을 동원해서까지 국내 여론을 어지럽히는 짓거리를 서슴치 않았다.

저들은 외국인 투자자가 감소했다. 기금운용 인력이 유출되고 있다. 하니 하는 따위의 말들을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전북도는 진실을 팩트대로 해서 제3금융도시 지정을 성취해내야 한다.

전북도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했다. 저들이 아무리 끈질기게 방해 공작을 해도 전북도는 제3금융도시 지정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저들이 접근성의 문제를 들어 전주 패싱을 말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저들이 제3금융도시 지정을 음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전주와 혁신도시는 제3금융도시로 우뚝서야 한다. 전북발전을 이끌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전북 제3 금융도시 지정은 모든 도민의 염원이 아닐 수 없다.

고용률 전국 최하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북도가 도내 고용률 현황을 살펴줘야겠다. 고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까닭이다. 상반기에 하반기에라도 고용률 전국 최하위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말이다.

지역 경제가 늘 빨간불인데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게 대책이 있는 지 궁금하다. 고용률 최저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끄러운 기록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난감한 나날이다.

전북도는 청년고용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마땅하다.

저번에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전북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청년 취업률이 미미한데 어떻게 물어 물어 보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며칠 전에 보도된 기사가 다시 생각난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전국 최하위권이었다는 거 말이다.

이제 그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북도는 2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일자리 13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공표한 적이 있다.

전북도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도내 고용 열기가 미지근하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했는데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실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전북도는 비정규 일자리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을 역지시켜야 한다.

여기 지면을 빌려 거듭 말하거나 청년 고용은 한두 번 시도해 보고 그만 둘 사안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 실적이 낮음에도 그럭저럭 관행을 것처럼 전망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

1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전북도가 실제로 2조 원이라는 거액을 풀어도 그 가능성을 저울질 할 수 밖에 없을 만큼 거창한 것이다.

전북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는 세월이 속히 끝나도록 전북도는 더욱 분발할 일이다.

독자제언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이 최고”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3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났다. 이제 낮 최고기온 10°C 웃돌면서 가벼운 옷차림을 보면 봄이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봄을 맞이하는 설렘 속에 불청객이 있다. 추운 겨울동안 얼어서 팽창했던 지반이 봄을 맞아 수축하면서 암벽이 무너지거나 도로의 침하현상, 옹벽 등 축대의 균열이 나타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흔하게 발생하는 위험요소로는 “포트홀”이 있다.

겨울철 제설작업 중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 도로 표장표면에 크고 작은 구멍이 생겨, 운전자들이 이 위험을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 차량 바퀴의 파손이나 펠크가 나가거나 이를 피하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

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밖에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인해 기울어진 축대가 있는 지, 등산을 갈 때는 낙석 및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요소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우리 생활 속의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정부와 국민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선제적 예방활동이다.

사고 후 대처보다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안전한 봄을 맞이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최혜진 고창경찰서 경무계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온몸으로 감상하는 반 고흐 전시회



지난 7일(현지시간) 관람객들이 벨기에 브뤼셀의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반 고흐: 물의 체험 전시회를 즐기고 있다. 음향과 조명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기술까지 적용해 관람객에게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과 영감을 감상하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